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자료실	4
양파 정식 시기및 묘의 크기	4
첨부파일(2)	4

양파 정식 시기및 묘의 크기

작성일 2018.10.17 10:0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71

첨부파일(2)  양파-양파-포장준비 및 정식.htm 599 hit/724.3 KB [다운로드](#)
 캡처.JPG 106 hit/125.2 KB [다운로드](#)



■정식시기 및 묘의 크기

고랭지양파의 정식기는 4월 하순~5월 중순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나 이 시기는 가뭄이 심하고, 수확기 전후에는 장마와 겹치므로 관수가 용이하고, 배수가 양호한 곳을 선택하여 정식한다.

양파의 뿌리가 생장할 수 있는 최저 온도는 4℃이나 평균 8~10℃이고,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때를 정식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인산은 생육초기에 충분한 흡수가 되는 것이 좋는데 인산의 흡수 한계온도가 8℃를 기준으로 급속히 상승하므로 이때가 정식기라고 생각한다.

정식시기의 묘의 크기는 초장이 25~30cm, 줄기 굵기 6~8mm, 잎수가 3~4매로 병에 걸리지 않고, 웃자라지 않는 묘가 좋다. 고랭지양파의 경우는 정식후 월동을 하지 않고 또 기온이 급속히 따뜻해지는 시기이므로 추대의 염려가 추파보다 적으므로 가능한 대묘를 생산하여 정식하면 대구 생산이 쉽다. 남부지방에서는 묘중에서 큰묘는 추대의 염려가 있어 정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고랭지양파에서는 가능한 큰묘가 좋다. 묘의 길이가 30cm 이상이면 묘를 25cm정도로 잘라서 정식할 수도 있으나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가급적 육묘시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하여 건전하고 충실한 묘를 정식하도록 한다.정식시 묘가 웃자라 절단하여 심거나 육묘시 미리 절단하면서 육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육묘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묘가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정식할 때 가능한 뿌리가 끊기지 않도록 정식 전날 묘상에 충분히 관수하고 호미나 이식삽으로 묘를 채취하며 정식시까지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보관하면서 즉시 정식하는 것이 활착과 생육에 좋다.

양파 정식시기및 묘의 크기

목록

GANGJIN

Web Contents

